



청렴 명언

“ 청렴은 공무원의 본무 本務 ”



청렴은 목민관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中



관직에 임하는 법에는 오직 세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세가지를 알면 몸가질 바를 알게 된다.



추적의 '명심보감'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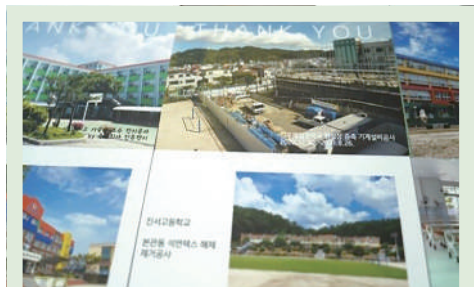
청렴 소식



경상남도교육청, 공사·물품 업체와 '청렴 상생'을 위한
격월 소식지 발간 & 아이톡톡 비대면 청렴 소통 추진



창원교육지원청,
더 존중 더 배려 캠페인



진주교육지원청,
학교공사 완공 기념 청렴 엽서 발송



양산교육지원청, 청렴 자원 봉사(헌혈)



남해교육지원청, 청렴 공감 컨설팅

청렴도 그것이 알고싶다

청렴
시상

청렴도 측정 바로알기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교육 실현

2021년 청렴도 측정 개요

✓ 측정 내용

공직자 본인과 구성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와 부패 경험을 측정하게 됩니다.

✓ 측정 대상

공사관리·감독, 물품분야 계약상대자 및 교직원

- 본청, 전 직속기관, 공립고·특수·각종학교 45교
- 6개 교육지원청(진주, 거제, 양산, 의령, 남해, 산청) 및 소속 초·중 156교

청렴도 측정은 **나와 나의 동료에 대한 설문**입니다.

✓ 설문 기간 8. 30. ~ 10월

측정 대상 기간: **2020.7.1.~2021.6.30** (1년간의 경험으로 답변)

✓ 조사 방법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 설문척도 (인식) 리커트 7점 척도 / (경험) 선택형 척도

< 리커트 7점 척도 >



8.6점
이상이면
매우 그렇다



청렴 홍보콘텐츠 입상작



충무초등학교 지은서 학생

사남초등학교 손정혜 학부모님

성지여자중학교 김태은 선생님

진주여자중학교 이은지 학생

남양초등학교 김다용 학생

거제중앙중학교 이지후 학생

청렴이란
약속을 지키는 너와 나처럼

노량초등학교
청렴
노래로 알아보아요

거제초등학교 박진용 선생님 외
<https://www.youtube.com/watch?v=DHFMAIPpw88>

노량초등학교 이나휘, 이해련, 천하나, 김병규, 전승수 학생
<https://www.youtube.com/watch?v=BOEUI7vRog0>

청림극장

영화 「미쓰와이프」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2015년에 개봉한 '미쓰와이프'입니다. 주인공 연우(엄정화 역)는 잘나가는 변호사로 살다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저승 같이 보이는 곳에 앉아 있게 됩니다. 알고 보니 죽은 사람을 분류하는 중개소의 실수로 저승으로 가게 되었고, 중개소 소장에게 한 달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려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안을 수락한 그녀에게 찾아온 삶은 자상한 남편 성환(송승헌 역)과 함께 두 자녀를 키우는 가정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 가족의 밤'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게 된 연우는 식사 도중 구청장에게 보도블록을 자주 교체하는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보도블록 교체를 주장하는 도시개발과 최수철 과장은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더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환을 대전으로 보내는 보복성 인사를 결정합니다. 이에 연우는 최 과장의 비리를 밝혀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회경건설 김비서님. 저는 이번 회경건설 재개발 건을 위임받은 이연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 재개발 건으로 공무원에게 리베이트 나간 적 있습니까? 혹시 그 안에 최수철 과장도 포함되어 있나요?”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장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얽혀 직무에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도 그 취지가 같습니다. 또한 제2장 제9조에서는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너무나 유명한 영화 <기생충>입니다. 기택(송강호 역)의 가족은 모두가 특정한 직업 없이 반지하 집에서 피자 박스 점기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장남인 기우(최우식 역)의 친구 민혁(박서준 역)이 찾아와 자신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니 자신을 대신해서 영어 과외를 맡아달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기우는 명문대 진학을 위해 4년째 공부 중인 재수생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요. 친구 민혁은

“그 집 사모님이 좀 심플해서 내가 소개한 사람이라면 믿을 것이고, 약간의 증명서류만 준비해 두면 괜찮을 거야. 기정이야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면? 포토샵 같은 것도 잘 하고.”

라는 말로 기우를 안심시키지요. 제안을 받아들인 기우는 여동생인 기정(박소담 역)이 포토샵으로 만들어 준 Y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재학 위조증명서를 통해 박 사장(이선균 역) 집의 과외교사로 취직하게 되고, 이후 기정도 신분을 속여 미술상담교사로, 기택은 박사장의 운전사로, 기택의 아내인 충숙(장혜진 역)은 입주가사도우미로 취업하여 박사장네 집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이 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의 제2조에 따르면 '부정청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박사장 집이나 회사가 공공기관은 아니므로, 기우 가족이 공공재정을 부정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문서를 위조하고 신분이나 경제적 여건 등을 속여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는 맥락이 같겠습니다. 실제 공공재정 부정청구의 예로는 원아 수를 부풀려 누리과정 지원금을 과다청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이러한 부정청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함으로써 공적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발신제한」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최근에 개봉한 <발신제한>입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더욱 친숙한 영화 일 텐데요. 은행센터장 성규(조우진 역)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출발한 평범한 출근길에 한 통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34억여 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차에 설치한 폭탄이 터질 거라고 협박하는데요. 성규는, 급전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 은행의 내부정보를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하여 환심을 산 후 그들의 자금을 빼돌리려 합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최소 수익률 10% 정도 보장하는 수익 건 하나 봤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블라인드펀드에 자리가 하나 남아세요. 사모님께 제일 먼저 연락드리는 거예요.”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장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조 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법적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의 모든 교직원들은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공적 이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삶이 행복으로 꽃필 수 있도록 청렴한 경남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청렴감사담당 장학사 김태완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읽은 것을 다른 정보와 연계하고 생활에 접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책을 읽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문해력이 낮아졌다고 분석한다.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지적 수준이 높다는 뜻으로 잘못 아는 중학생들이 이야기가 화자하는 것을 보면 비단 어휘력만의 문제로 국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필자는 반부패가 곧 청렴의 완성이라 오인하는 이들을 겨냥해 '청렴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보았다.

청렴 문해력이란 청렴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면의 의미와 본질적 가치를 읽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옮길 줄 아는 힘을 말한다. 이를테면 특권과 반칙을 청렴의 반의어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약속·배려·절제·책임·정직·공정'의 6가지 덕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얼마나 '바르게, 그러나 다르게, 그리고 빠르게' 수행하려 하는지에 대한 의지와 실천역량을 청렴 문해력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한 의료진이 방호복에 마스크, 고글과 장갑까지 착용하고 입원한 할머니와 마주앉아 화투를 치는 모습이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감염될까 봐 두렵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얼른 기운을 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배려한 끝에 생각한 아이디어라는 간호사의 말 속에 '바르게, 그러나 다르게, 그리고 빠르게'로서의 청렴 문해력이 담긴 셈이다.

최근 정부가 한 기업과 손 잡고 자원 순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페트병 라벨을 떼어내는 작은 실천 하나가 소중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맥락에서 귀여우면서도 역동적인 말(馬)을 캐릭터로 내세워 '라벨 떼는 말이야'라 외치고 있다. '라떼는 말이야'에 변주를 주며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한 담당자 역시 청렴 문해력을 선보인 셈이다.

우리 교육청도 '라벨 떼는 말이야'를 곳곳에 들려준다. 대표적인 예로 초등 돌봄 서비스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돌봄의 새 모델을 만든 '늘봄'을 들 수 있다. 명서초등학교 별관에 자리한 '늘봄'은 돌봄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시대정신을 읽고 책임과 배려로 적극행정을 펼친, 청렴 문해력의 이정표인 셈이다.

오늘도 내일도 경남교육가족 모두가 청렴행 '아이좋아' 버스에 탑승하여 '라벨 떼는 말이야'를 외치기를 기대해 본다. 운전자가 누구일지 자못 궁금하기도 하다.

